복식문화연구
제3권 제2호 347~370(1995)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 연구

김 진 구 · 이 유 경*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A Study on the Clothing Behaviors of the Aged Women

Jin-Goo Kim and Yu-Kyung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 Part time 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Ⅰ. 서 론
Ⅱ. 노년기 여성 의복에 대한 선행연구
1. 의복행동
2.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와 의복행동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Ⅳ. 결과 및 논의
1. 의복행동
2.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
3.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의 상관관계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elderly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ing due to advances in public health, medical care, and quality of life. Social, economical influence of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oo. Research regarding elderly people is important because many elderly people take care of their appearance and clothing, and cloth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lderly women's everyday lif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ife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lothing behavior of women aged 55 years and older who were residents of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1. The importance of various factors on clothing behavior is different. They are management, clothing importance, fashion indifference, information search and purchase planning, clothing dependence, status symbol, and conformity in order of the importance.
2. Ag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f fashion indifference and clothing dependence, but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information search and purchase planning.
3. Ag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f life satisfaction and allowance.
4. Appearance satisfaction is positively related with age, but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neither allowance nor education.
5.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ll clothing behavior factors except status symbol.
6. Appearance satisfaction are siginicantly correlated with management, conformity, clothing dependence, and clothing importance. And life satisfaction has mor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lothing behavior than appearance satisfaction does.

Ⅰ. 서 론

현대사회는 의학 및 사회 각 영역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의료혜택의 증가, 여가시간의 증대 등과 같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은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노령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인구 도시화 현상을 수반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사회·경제적 영향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1970년 63.2세 (남자 57.4; 여자 62.7세), 1980년 65.8세 (남자 62.7; 여자 69.1), 1990년 71.3세 (남자 67.4; 여자 75.4)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에는 74.3세 (남자; 71.3 여자 77.4) 2021년에는 77.0 (남자 74.9; 여자 79.1) 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노인 인구층의 규모와 그 비율을 살펴보면, 1970년에 60세 이상이 170만 4천명 (5.4%), 65세 이상은 103만 9천명 (3.3%)이고, 1980년 60세 이상 226만 8천명 (6.1%), 65세 이상 144만 6천명 (3.9%)이며, 1990년도에 60세 이상 인구가 331만 9천명 (7.6%), 65세 이상이 216만 2천명 (5.0%)이었다. 2000년에는 각각 498만 4천명 (10.7%)과 316만 8천명(6.8%)으로 추산된다 (통계청, 1992; 이가옥, 1992). 또한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 14세 이하의 년소인구를 의미하는 인구의 노년화 지수도 1990년 19.4에서 2021년에는 82.9로 급증하리라는 전망이다 (대한노인복지연구원, 1990; 통계청, 1991; 통계청, 1993).

남녀 노인의 性比는 노인인구에 대한 또 다른 논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노인에 대한 여자노인의 비율이 1970년에 60세 이상 58.9%, 65세 이상 61.7%이고, 1980년에는 60세 이상이 59.8%, 65세 이상이 62.7%, 1990년에는 각각 60.7%와 62.4%로 여자노인의 수가 남자노인의 수보다 월등히 많음을 볼 수 있다 (통계청, 1992). 그러므로

인구 고령화라는 현상과 더불어 성별인구의 불균형 상태로 인한 여자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문제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상태의 향상, 활발한 사회참여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 노인 인구의 의복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며,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노년기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심리적·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노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의복 문제를 지닌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은 그들의 외모와 의복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중요성을 부여하며 또한 노인에게 의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wang(1993)도 많은 노인들이 외모와 의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한 박미애(1987)의 연구에서는 2/3가량의 노년기 여성이 의복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노년기 여성이 외복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심리적 근거를 들 수 있다. 의복은 무언의 전달체로서 (a form of nonverbal communication) 착용자의 자존심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Bader, 1983; Chowdhary, 1988). 또한 Kernaleguen (1978)는 매력적인 의복은 노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지지를 해주어 사기를 높여주고 자아확신을 줌으로써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Sontag과 Schalter (1982)도 개개인의 자아개념은 삶의 질을 지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의복은 심리적으로 자아에 가장 가까운 대상임을 지적했다. 즉, 의복이 삶의 질을 지각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노년기의 외형적인 신체적 변화와 건강면에서의 신체노화가 노인 외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Baum와 Boxley(1983)는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원하지 않는 신체적 변화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젊어보이기 위해 의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노인의 신체 변화는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자아개념과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Kimmel, 1974). 따라서 의복은 노인들의 부적절한 신체변화를 감추어 주고 보완해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Rosencranz (1972)는 밍크코트와 같은 특정 고가품의 의복은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의 매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효과는 노인복이 신체영상 (body image) 보다는 의복영상 (clothing image)을 강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노년기의 외복은 또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노인들은 정년퇴직, 자식들의 분가, 배우자, 친지와의 사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인한 소외감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임치경, 1984). 선행연구들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적 외관을 통한 좋은 인상의 창조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즐거움을 주는 외모는 노인에게도 품위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며 (Ryan, 1966), 사회 참여와 의복의 적합성 사이에는 유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Ebeling & Rosencranz, 1961). 이와 같이 의복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노인에게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노인 의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성 노인 인구가 남성 노인 인구를 양적인 면에서 앞지르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또한 여성복의 유행 변화는 남성복의 유행변화보다 빠를 뿐 아니라, 여성복의 디자인 및

선택의 범위가 남성복보다 넓고 가격면에서도 고가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의복요구를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렵고 의복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Hoffman, 1970). 이처럼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인구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크며, 의복관심 및 행동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이며, 분명한 요구 및 의견을 가지고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행동관여도가 높다고 한 김순구(1993)의 주장도 이러한 점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연령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면, 사회적 및 법률고용문에 있어 퇴직 연령이 일반공무원 55세, 교육공무원 65세이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혜대상자격 연령이 60세이며, 노인복지법 (1981)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짓고 있다. 한편 자신을 노인이라고 느끼는 연령으로는 60세 이상인 경우가 57.8%로 가장 많았다. 임종권 외의 연구 (1985)도 이러한 결론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처럼 노년기의 연령기준은 복합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문화권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동일한 문화권에서도, 성별, 계층, 생활양식 등에 의해 구분되는 하위집단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노인 및 노인의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순남은 노년기 여성의 연령 기준을 Neugarten의 노인 집단분류 중 young-old의 시작 연령인 55세로 하였다 (최순남, 1984). 또한 박재옥과 김일분(1985)의 노년기 여성 의복 연구에서는 다양한 노인의 개념을 고려해서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Hwang (1993)도 5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김순구(1993) 도 55세 이상을 노인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반면에, 노인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라기 보다는 이질적인 집단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내기도 한다. Neugarten이 노인집단을 초로기, 중로기, 노쇠기를 다시 보다 활동성이 크고 지위가 유지되는 55세에서 64세 까지의 노인준비기로 규정하고 65세 이상을 노인성숙기로 정의하여 분류한 것이 그것이다 (최순남, 1984). 또한 65세 이상의 노년층에는 65~75세와 75세 이상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그룹이 있음을 지적한 것도 볼 수 있다 (The Old Women's Wear Daily, 1967).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이 사회변동에 따라 유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이 55세부터 시작되어, 본인 및 배우자의 심리적, 사회적 역할 변화를 맞게 될 뿐 아니라, 남자보다 여자가 노인으로서의 자각을 빨리 느낀다는 (전재일, 1978)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여성의 경우 55세는 노인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시내 거주 5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의류시장에서 중요한 소비자 집단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를 고찰하여, 그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변인들을 연령, 학력, 용돈, 직업 유무 등의 배경변인들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서는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의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노년기 의복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Ⅱ. 노년기 여성 의복에 대한 선행연구

1. 의복행동

노인에게 있어서 의복이란 자신의 가치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Chowdhary(1988)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모는 주어진 대상이기 보다는 만들어가는 대상이므로 적절한 의복 착용은 노인의 외모와 자존심을 고양시킨다고 하였다. Bader(1963)도 의복이 외모를 향상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Hogge와 Baer(1986)는 노인들이 외모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의복은 젊었을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점을 강조했다. 노인들은 신체적인 퇴화와 자식들의 분가, 배우자 친지와의 사별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감소, 경제력 상실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적절한 의복을 사용하여 자신감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Smathers & Horridge, 1979).

또한 노인은 역연령과 심리적 연령이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실제의 나이보다 젊게 느끼기도 하고 더 나이들게 느끼기도 한다. 젊게 느낀다는 것은 젊게 보이도록 하고 젊게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바, 의복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노년기에 대한 의복연구들을 보면, 의복착용을 통하여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하였으며, 노년층 여성에게 적절하고 어울리는 의상은 실제 연령보다 자신을 젊어 보이게 하고 또 신체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점을 지적한다 (유경숙, 1984).

이는 다른 연령층과 같이 노년층에게도 외모가 심리상태에 주는 영향이 크며, 자신의 용모에 만족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자아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하여 노인 의복의 사회, 심리적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 연구결과 (박미애, 1987)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노인에게 있어서 의복은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offman, 1970). Callis (1982)도 매력적인 의복착용은 노년기의 상실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잃었던 자아를 지지해 주고 자아상을 높여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교우관계를 맺을 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젊었을 때 의복에서 중요시하였던 외적 측면은 나이가 들면서 그 중요도는 다소 감소하였고, 반면, 안락감, 맞음새의 중요도는 크게 부각되었다 (강혜원, 이선경, 1990). 또한 의생활에 대한 태도에서 의복의 중요성은 42%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유행에 관심을 둔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나서 의복에 대한 흥미는 연령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노인의 의복선택기준으로 활동성 (39%), 심미성 (36%) 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안락감과 함께 미의식도 그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재옥, 김일분, 1985).

한편, 노년기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의복만족도가 높으며, 의복의 선택 및 착용시에 사회적 認定性보다 심리적 의존성을 중시한다. 사회적 인정성과 심리적 의존성을 중요시할수록 의복만족도가 낮으며, 사회적 불안감이 낮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계층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인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교육수준은 의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계층이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다 (임치경,

1984). Kernaleguen(1978) 은 노인들이 의복선택시 맞음새와 스타일을 가장 중시했으며, 안락감, 가격, 관리 용이성, 보온성도 주요한 요인으로 손꼽았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승인욕구와 관련된 동조성 행동의 정도는 자신감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므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보다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이 더 동조한다고 한다 (고영복, 1980). 노인들은 그들의 외모를 보강하기 위해 의복을 중요하게는 생각하나, 착용방법에 있어서 개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이 착용한 것을 모방하므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한 동조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집단은 성인집단에 비해 동조성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Hartup(1970)은 동조성과 나이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일정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행동의 종류, 성별, 동조압력을 가하는 정책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하여, 김순구 등과는 다른 견해를 나타낸다. 노인들의 의복흥미도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순구, 1993).

또한 노년층 여성들의 경우, 대체로 패션수용에 있어서 느린 것으로 판단되나, 패션변화를 수용하려는 여러 가지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패션속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최상으로 어울릴까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Bader, 1963). Horn과 Gurel(1981)은 노인들이 의복의 안락감뿐 아니라 전체적 외형과 유행에도 관심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대다수의 노인들은 최신 유행경향에 뒤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Bader, 1963). 즉, 노인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바람직한 외모를 갖고자 하므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인지되는 것이 두려워서 최신 유행에 동조하며(Kernaleguen, 1978) 그러기 위해서 대중매체나 인적 정보원으로부터 유행정보를 얻고자 한다. 유행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은 적게 접한 사람보다 최신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된 바 있다(Chowdhary, 1988). 또한, Huddleston, Ford, Bickle(1993)은 노년층 내에도 유행 의견 선도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높은 자존심을 가진 노인과 낮은 자존심을 나타낸 노인들 간에는 유행성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노인들의 연령지각과 유행성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다. 68%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실제 연령보다 젊게 지각했으며 28% 노인들은 실제 나이와 동일하게 지각했고 단지 3%만이 실제보다 늙은 것으로 지각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Chowdhary, 1988).

배경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의복행동 관여도가 높았으며, 특히, 미적 측면, 관리 계획성, 유행경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생활정도가 상류 및 중류는 하류보다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다 (정희용, 임숙자, 1988). 이처럼 교육수준, 건강상태, 생활수준은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2.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와 의복행동

生의 만족이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 가치있고 성공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이나 주관적 복지상태를 나타내 주는 일종의 감정상태이다. 이에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전생애를 통해 자신의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과의 합일정도로 정의내릴 수 있다(김수연, 1987). 즉,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이란 현재 상

황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을 말한다. Neugarten 등은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① 현재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② 본인의 인생을 의미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한 절대적 수용 ③ 바라던 목적과 성취한 목적간의 일치를 이루므로서 인생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감정 ④ 긍정적인 자아상 ⑤ 행복 및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에 대한 유지를 들고 있다 (김순구, 1993).

일반적으로,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수입, 교육, 결혼상태, 사회적 활동 등이라고 일컬어진다. 특히 노인층에 있어서는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 사회적 활동이 주요인자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가정내의 역동적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 외에 가정내 위치, 여가선용 상태 등도 경제상황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김영애, 1991). 그러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각 변인의 중요도는 개인과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생활만족도는 노인기의 의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부산거주 성인, 노인 남녀의 경우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의복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김순구, 1993), 서울 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한 연구에서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의복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박미애, 1987). 생활만족도는 의복관심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어 생활에 만족할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서울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의복관심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광주집단은 의복변인과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아가 높아지고 의복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유경숙, 1984). 노인들에게 있어서 생활만족도와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과도 비례한다.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의 하나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성복에 대해 만족한다는 (김영애, 1991) 결과도 관심을 끈다.

외모만족도란 자신의 신체 각 부분의 모습이나 전체적 모습, 신체 움직임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수입, 사회 참여도, 지위, 교육수준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외모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Hwang, 1993). 또한 교육정도와 계층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희용, 1987). 노인에게 있어서 외모만족도는 의복행동 및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Hwang, 1993) 신체만족도는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혜원, 이선경, 1990; 김순구, 1993).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령층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의 만족도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영윤, 1982). 또한 Mclean (1978)은 20~89세 사이의 여성의 의복만족도와 신체적 만족도 사이에서 40대-70대-60대-50대의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 나타남을 지적했다(유경숙, 1984). LaBat(1988), LaBat과 Delong(1990)은 외모만족도와 기성복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강한 정적 관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신체만족도는 자아개념 및 의복행동과 더욱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Hwang, 1993).

또한 신체적 자아는 서울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의복관심과, 광주집단은 의복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경숙, 1984). 노년기 여성의 외모만족도는 의복 행동 (의복태도,

기성복 만족도, 쇼핑 만족도, 쇼핑 동반자, 의복비 지출) 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Hwang, 1993).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도 신체만족도가 높고 의복에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기성복, 제품의 다양성, 점포의 수준에 만족했고 쇼핑을 즐겼으며 자신있게 적절한 의복을 선택했고 의복을 많이 구입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Shim 외 2인, 1991).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여성의 경우 55세는 노인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노인 의복행동을 예측하고 노년기 여성의복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5세 이상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2000년대 전체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여(통계청, 199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연령층으로 주목되기 때문이다.

연구기간은 1, 2차 예비조사를 거쳐서, 1994년 11월 부터 1995년 1월 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류학 전공의 훈련받은 면접자가 노년기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노년기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자기 작성 질문지법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례의 예비조사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는데,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응답능력에 따라 인터뷰 및 자기응답식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시내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8곳의 노인대학 (노원구의 평화노인대학과 북부장수대학; 송파구의 정각여성대학; 강남구의 압구정 여류노인대학; 종로구의 세검정 노인대학; 용산구의 이촌노인대학; 성북구의 정릉노인대학; 동작구의 동작시범노인대학)과 3곳의 노인정(서초구, 서대문구, 관악구)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학생의 친·인척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도 자료를 수집하여 연령 및 계층 등이 다양한 대상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질문지 총 600부를 배부하여 514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418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은 조사대상 노년기 여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근거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 의복행동

Creekmore(1966)가 개발한 의복관련변인 측정문항을 비롯하여 강혜원(1974)과 김순구(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그 중 총 31문항을 선정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의복 행동을 측정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연 령	55~64세 이하	229	54.8
	65세 이상	189	45.2
	계	418	100.0
학 력	국민학교 졸업 이하	125	29.9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4	51.2
	전문대학교 이상	62	14.8
	무 응	17	4.1
	계	418	100.0
직업 유무	있다	57	13.6
	없다	334	79.9
	무 응	27	6.5
	계	418	100.0
용 돈	10만원 미만	98	23.4
	11만~20만원	120	28.7
	21만~40만원	107	25.6
	40만원 이상	62	14.8
	무 응	31	7.4
	계	418	100.0

* 는 복수응답한 결과임.

2)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윤진(1982)이 개발한 척도와 김순구(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8문항을 선정하였다. 의복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Secourd와 Jourard (1953), 구자명(1993), 김미영(198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생활 및 외모만족도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분석방법은 SPSS/PC를 사용하여, 의복에 대한 행동, 생활 및 외모 만족도, 의복만족에 관한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인분석하였고,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일원분산분석, T-Test를 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에 거주하는 노년기 여성으로 하여 서울 시내의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계층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이를 편의적으로 추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Ⅳ. 결과 및 논의

1. 의복행동

의복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31문항을 특성별로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요인추출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때 varimax 회전하여 공통분산치가 0.4미만의 문항은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23문항을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것으로 7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7개 요인에 대해 전체분산의 55.7% 설명력을 나타냈고, 7개 요인 가운데 요인 1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요인부하량 0.5미만의 수치의 문항은 제외시켰으며, 요인에 대한 명명은 각 요인의 문항내용을 종합하여 공통되고 대표되는 특성을 근거로 정의하였다. 즉, 요인 1은 관리성으로 명명했으며, 요인 2는 동조성, 요인 3은 지위상징성, 요인 4는 의복의존성, 요인 5는 의복중요성, 요인 6은 유행무관심성, 요인 7은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의복행동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요인 1: 관리성		6.7149	23.2
- 옷의 세탁이나 보관 등에 정성을 기울인다.	.7592		
- 단추가 떨어졌거나 바느질이 터진 곳은 즉시 수선한다.	.6335		
-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의 주관대로 옷을 입는다.	.5468		
-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계절에 맞는 나의 옷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본다.	.5220		
요인 2: 동조성		2.6851	32.4
- 활동하기 불편한 옷이라도 멋있어 보이면 입는다.	.7156		
-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도 친구들이 모두 입으면 나도 입게 된다.	.6277		
-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었을 때 더욱 친밀감을 느낀다.	.6211		
- 평소에 멋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옷을 따라 입고 싶다.	.4804		
요인 3 : 지위상징성		2.0424	39.5
- 외출할 때는 남이 인정해줄만큼 좋은 옷을 입고 싶다.	.7427		
- 나의 지위(경제적, 사회적)가 높다면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입겠다.	.6286		
- 보기에 비슷한 옷이라도 이름없는 메이커의 옷보다는 다소 비싼 일류 메이커의 옷을 입고 싶다.	.6277		
- 값싼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의 신분을 낮게 평가하는 것 같다.	.6235		

<표 2> 계속

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요인 4 : 의복 의존성		1.2979	43.9
- 같은 옷을 계속해서 입으면 쉽게 싫증이 난다.	.6839		
-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한다.	.6478		
- 마음에 들지않는 옷을 입은 날은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 싫어진다.	.5493		
요인 5 : 의복 중요성		1.2830	48.4
-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에 변화를 주면 기분전환이 된다.	.6640		
- 적은 돈과 노력, 시간을 들여서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5983		
- 내 마음에 들게 옷을 입은 날은 하루종일 기분이 좋다.	.5714		
요인 6 : 유행 무관심성		1.0833	52.1
- 유행을 따르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이다.	.6313		
- 나는 유행에 상관없이 옷을 입는다.	.6028		
요인 7 : 정보 탐색 및 구매계획성		1.0330	55.7
- 옷을 사러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운다.	.6622		
-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을 볼 때 가수나 배우들의 옷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6530		
- 어떤 옷이 유행하고 있나를 알기 위해 백화점이나 상점의 진열장을 구경할 때가 있다.	.5671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을 분석한 결과, 의복행동을 구성하는 7개 요인은 각기 다른 결과 및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리성 (평균 4.118)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며, 의복중요성 (3.674), 유행무관심성 (3.589),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 (3.462), 의복의존성 (3.451), 지위상징성 (3.167), 동조성 (2.610)의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이 중 관리성은 4점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동조성은 3점 이하로서 의복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복의 외적 측면은 나이가 들면서 그 중요도가 다소 감소하고, 반면 안락감 및 맞음새의 중요도는 크게 부각된다고 한 강혜원(1990) 등의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서, 착용시의 안락감과 맞음새를 위해 의복의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복의 외적인 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조성과 지위상징성 요인은 가장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Kernaleguen(1978)도 노인들이 의복선택시 맞음새를 가장 중시했으며, 안락감, 가격, 관리용이성, 보온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고 하여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표 3> 의복행동 요인의 평균

의복행동	평균
관리성	4.118
동조성	2.610
지위상징성	3.167
의복의존성	3.451
의복중요성	3.674
유행무관심성	3.589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	3.462

이처럼 관리성과 의복중요성은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반면 지위 상징성과 동조성은 설명력이 가장 낮은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향숙(1985)도 직업여성의 의복선택행동을 조사한 연구에서 전반적인 의복구매행동 중 경제성, 정숙성, 실용성, 개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동조성은 낮게 나타났다고 하여, 연령층에 관계없이 동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년기 여성들이 의복의 선택 및 착용시에 사회적 인정성보다는 심리적 의존성을 중시한다고한 임치경(1984)의 연구결과도, 의복의 의존성이 지위상징성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겠다.

또한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이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의복행동의 각 요인과 연령, 학력, 용돈, 직업 유무 등의 배경변인들을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복행동은 각 배경변인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집대상을 65세 이상과 64세 이하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관리성,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은 $p<0.001$ 수준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행무관심성은 $p<0.01$ 수준에서, 그리고 의복의존성은 $p<0.05$ 수준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조성, 지위상징성, 의복중요성은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하고 그와는 반대로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관리성과 의복 의존성, 유행무관심성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유행에는 무관심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전보다 더욱 의존적이기 때문에 의복의 관리에 치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건강도 양호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계획에 따라 구매하는 경

<표 4> 의복행동과 연령과의 상관관계

의복행동	55세~64세 이하	65세 이상	t
관리성	3.979	4.294	−4.78***
동조성	2.556	2.680	−1.40
지위 상징성	3.133	3.210	−0.83
의복 의존성	3.374	3.547	−1.94*
의복 중요성	3.627	3.730	−1.31
유행 무관심성	3.477	3.722	−2.46**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	3.598	3.294	3.38***

* $p<0.05$, ** $p<0.01$, *** $p<0.001$ 에서 유의함

<표 7> 의복행동과 직업과의 관계

의복행동	유	무	t
관리성	4.004	4.125	−1.22
동조성	2.353	2.634	−2.21*
지위 상징성	3.073	3.158	−0.65
의복 의존성	3.432	3.431	−0.00
의복 중요성	3.657	3.661	−0.04
유행 무관심성	3.355	3.681	−1.87*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	3.351	3.460	−0.82

* $p<0.05$에서 유의함.

반면, 의복행동 요인 중 동조성, 의복의존성, 의복중요성,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에 있어서는 용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의복행동 요인에서 용돈액수가 많아질수록 의복행동 평균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노년기 여성의 용돈이 증가하여 경제적 여유가 많아질수록 의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복행동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표 7〉은 직업 유무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의복행동의 7개 요인 중 동조성 및 유행무관심성 사이에서만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의복행동에서 동조성이 높으며 유행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복행동 중 관리성, 지위상징성, 의복의존성, 의복중요성,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의 요인들은 직업 유무에 관계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집단성원들의 의복을 통해 의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집단의 의복규범에 동조함으로써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업이 있는 집단은 직업이 없는 집단보다는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집단의복규범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행 스타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54명인 반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314명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두 집단을 단순 비교하여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이라고 여겨진다.

2.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9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때 varimax 회전하여 공통분산치가 0.4미만의 문항은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6문항을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것으로 1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1개 요인에 대해 전체분산의 60.4%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 결과는 문항 내용과 함께 〈표 8〉로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노년기 여성의 전체 생활만족도는 평균 3.779로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표집대상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연령, 학력, 용돈, 직업 유무와 같은 배경변인과 관련시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령을 구분하여 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65세 이상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3.976로서 64세 이하의 생활만족도 평균 3.6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바, 65세 이상의 집단이 64세 이하의 집단보다 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학력을 국민학교 졸업이하, 고

<표 8> 생활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및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3.0218	60.4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6557		
현재 나의 일(가사·직장일)에 대해 만족한다.	.6581		
나의 가정생활(부모 · 형제·남편·자녀문제 등)에 만족한다.	.6088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5724		
나의 생활정도(주택·자동차·가구·여가활용 등)에 만족한다.	.5268		

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F값은 1.3793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수준의 높고 낮음은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용돈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를 한달 용돈 액수에 따라 10만원 미만, 11만~20만, 21만~40만원, 40만원 이상과 같이 4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용돈에 따라 분류된 4집단의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조사대상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의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고찰하였다.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업이 있는 경우의 생활만족도 평균이 3.433, 직업이 없는 경우의 평균이 3.791로 $p<0.01$ 수준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이 없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노년기 여성이 직업을 갖게된 배경이 자아실현 등의 심리적 목적이기보다는 경제적 목적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64세 미만보

<표 9>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평균

배경변인	구 분	생활만족도 평균	F (t)
연 령	64세 이하	3.828	−3.74***
	65세 이상	3.978	
학 력	국민학교 졸업 이하	3.655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32	1.3793
	전문대학교 이상	3.733	
용 돈	10만원 미만	3.602	
	11만~20만원	3.670	4.1890**
	21만~40만원	3.844	
	40만원 이상	4.091	
직업 유무	있다.	3.433	−2.69**
	없다.	3.791	
전 체		3.779	

* $p<0.05$, ** $p<0.01$, *** $p<0.001$에서 유의함.

다 65세 이상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용돈의 액수가 적은 집단보다 많은 집단이, 그리고 직업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이 생활 전반에 걸쳐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모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7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요인추출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것으로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2개 요인에 대해 전체분산의 67.47%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인 1은 신체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2는 얼굴 및 인상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11〉은 연령, 학력, 용돈, 직업 유무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외모 만족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외모만족도 중 신체만족도의 평균은 3.091이며 얼굴 및 인상만족도의 평균은 3.486으로 신체보다는 얼굴 및 인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도 64세 이하 집단과 65세 이상 집단 모두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력, 용돈, 직업 유무 등의 변수에 따라 구분된 집단 모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처럼 모든 집단에서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신체만족도보다 높은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형이 변화하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신체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 얼굴의 변화는 비교적 적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며 대인관계는 원만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체평균이 3.290인 외모만족도는, 65세 이상의 집단의 경우가 3.417, 64세 이하의 집단의 경우가 3.186로 연령이 높은 집단의 전체적인 외모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김양진(199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고 2학년의 외모만족도는 2.9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기 이후의 연령에 속하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불만족도도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모만족도 중 신체만족도 요인과 얼굴 및 인상만족도 요인도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만족도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집단은 3.239를 나타내고

<표 10> 외모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1. 신체만족도		3.6789	52.6
나의 복부(허리·배·엉덩이)모습에 만족한다.	.9000		
나의 팔, 다리 모습에 만족한다.	.8134		
나의 전체 모습(체격·자세등)에 만족한다.	.8111		
나의 피부에 만족한다.	.5107		
2. 얼굴 및 인상만족도		1.0398	67.4
나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8404		
나의 외모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7850		
나의 얼굴모습에 만족한다.	.6008		

<표 11> 배경변인에 따른 외모만족도

배경변인	구 분	외모만족조	
		신체만족도	얼굴 및 인상만족도
연 령	64세 이하	2.973	3.398
	65세 이상	3.239	3.595
	t	−2.81**	−2.13*
학 력	국민학교 졸업 이하	3.108	3.466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15	3.484
	전문대학교 이상	2.983	3.505
	F	0.4018	0.0374
용 돈	10만원 미만	2.954	3.414
	11만~20만원	3.034	3.405
	21만~40만원	3.282	3.585
	40만원 이상	3.089	3.572
	F	1.8981	1.1012
직업 유무	있다	3.0982	3.579
	없다	3.0748	3.462
	t	0.0247	0.7384
전 체		3.091	3.488

* $p<0.05$, ** $p<0.01$, *** $p<0.001$수준에서 유의함

64세 이하의 집단은 2.973를 나타내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얼굴 및 인상만족도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집단은 3.595를 나타내고 64세 이하의 집단은 3.398을 나타내어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생활만족도가 65세 이상의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처럼, 생활만족도, 신체만족도, 얼굴 및 인상만족도 모두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65세 이상의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을 제외한 학력, 용돈, 직업 유무의 배경변인은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인상만족도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노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 와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연령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뿐, 학력, 용돈, 직업 유무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의 상관관계

의복행동은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는 지위 상징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행동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관리성(0.3093, $p<0.01$), 동조성(0.1092, $p<0.05$), 의복의존성(0.1657, $p<0.05$), 의복중요성(0.1986, $p<0.$

<표 12>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의복행동	생활만족도
관리성	0.3093**
동조성	0.1392*
지위상징성	0.0341
의복의존성	0.1657*
의복중요성	0.1986**
유행무관심성	0.1505*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	0.1474*

* $p<0.05$, ** $p<0.01$, *** $p<0.001$에서 유의함.

<표 13> 의복행동과 외모만족도의 상관관계

의복행동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	얼굴 및 인상만족도
관리성	0.2716**	0.2559**
동조성	0.2248**	0.2686**
지위상징성	0.0414	0.0809
의복의존성	0.0916**	0.2465**
의복중요성	0.1667*	0.2324**
유행무관심성	0.1116	0.0479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	0.1005	0.1713**

* $p<0.05$, ** $p<0.01$, *** $p<0.001$에서 유의함.

01), 유행무관심성(0.1505, $p<0.05$),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1.1474, $p<0.05$) 등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에 대한 관심은 더 낮게 나타났다.

부산거주 노년기 여성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인 의복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한 김순구(1993)의 연구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순구는 동연구에서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의복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다. 한편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한 유경숙(1984)의 연구도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생활만족도는 노년기 여성의 복식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복행동과 외모만족도는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외모만족도 중 신체만족도는 관리성, 동조성, 의복 의존성, 의복 중요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관리성(0.2716, $p<0.01$), 동조성(0.2248, $p<0.01$), 의복의존성(0.0916, $p<0.01$), 의복중요성(0.1667, $p<0.05$))은 높게 나타났으며 지위 상징성, 유행 무관심성,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과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Hwang(1993)도 노년기 여성에게 있어서 외모만족도는 의복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얼굴 및 인상 만족도는 신체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관리성, 동조성, 의복 의존성, 의복 중요성에 추가하여,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과도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높을수록 관리성(0.2559, $p<0.01$), 동조성(0.2686, $p<0.01$), 의복 의존성(0.2465, $p<0.01$), 의복 중요성(0.2324, $p<0.01$)),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0.1713, $p<0.01$)과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모두가 $p<0.01$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지위 상징성, 유행 무관심성과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 지위 상징성과 유행 무관심성은 외모만족도의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인상만족도 모

두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인상 만족도로 나누어지는 외모만족도 역시 노년기 여성의 복식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또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한 정희용, 임숙자(1988)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생활만족도는 외모만족도보다 의복행동과 더 미리 접한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복행동 요인 중 관리성, 동조성, 의복의존성, 그리고 의복중요성은 3가지 만족도 변인(생활만족도, 신체만족도, 얼굴 및 인상만족도) 모두와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행무관심성과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은 만족도 변인들과 부분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반면에 지위상징성은 세 가지 만족도 변인 중 어느 것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로써, 노년기 여성들은 생활만족도, 신체만족도,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의복의 관리성, 동조성, 의복의존성, 의복중요성도 함께 증가하나, 지위상징성은 이와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을 조사하고, 이것이 생활만족도와 외모만족도, 배경변인(연령, 직업 유무, 학력, 용돈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은 5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자의 응답능력에 따라 인터뷰 및 자기작성 질문지법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기간은 1994년 11월 부터 1995년 1월까지로, 서울시내의 8개의 노인대학, 노인정을 방문하고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학생의 친·인척 노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총 600부를 배부하여 514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418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PC를 사용하여, 상관관계, 일원분산분석, t-test를 하였고, 빈도와 퍼센트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은 관리성, 동조성, 지위상징성, 의복 의존성, 의복 중요성, 유행 무관심성, 정보탐색 및 구매 계획성의 7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중요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관리성, 의복 중요성, 유행 무관심성, 정보탐색 및 구매 계획성, 의복 의존성, 지위 상징성, 동조성의 순이었다.
2) 의복행동은 배경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를 65세 이상과 64세 이하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 관리성, 의복 의존성, 유행 무관심성, 정보탐색 및 구매 계획성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관리성과 의복 의존성, 유행 무관심성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탐색 및 구매 계획성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학력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행 무관심성, 정보탐색 및 구매 계획성만이 노년기 여성의 학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 유행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용돈의 경우에 있어서는, 용돈이 많을수록 관리성과 지위상징성이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유행 무관심성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직업 유무는 의복행동의 7개 요인 중 동조성 및 유행 무관심성 사이에서만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동조성 및 유행 무관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3) 표집대상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3.779로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연령을 구분하여 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본 결과, 65세 이상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3.976로서 64세 이하의 생활만족도 3.628보다 높게 나타내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용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외모만족도중 신체만족도는 평균 3.091이며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평균 3.486으로 신체보다 얼굴 및 인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64세 이하의 집단보다 65세 이상의 집단에서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만족도, 신체만족도, 얼굴 및 외모만족도 모두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외모만족도에 있어서 학력, 용돈, 직업유무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유위미한 차이는 없었다.

5)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 및 외모만족도와 의복행동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생활만족도는 지위상징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관리성, 동조성, 의복 의존성, 의복 중요성, 유행 무관심성, 정보탐색 및 구매 계획성 등은 더 높게 나타났다.

6) 외모만족도 중 신체만족도는 관리성, 동조성, 의복 의존성, 의복 중요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얼굴 및 인상 만족도는 관리성, 동조성, 의복 의존성, 의복 중요성, 정보탐색 및 구매 계획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지위 상징성과 유행 무관심성은 외모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생활만족도는 외모만족도보다 더 밀접하게 의복행동과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생활 및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의 관리성, 동조성, 의복의존성, 의복중요성은 높아지나, 지위상징성은 이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점차 노년기 의생활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년기 여성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 외모만족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요구되어진다는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또한 노인의복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했던 여러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며,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에 대한 더욱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노년기 여성복뿐 아니라 남성복까지로도 연구의 폭을 넓히고, 서울로 한정시켰던 연구 대상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노년기 의복에 대한 이론 정립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6, 1974.
강혜원, 이선경, 노년층 남녀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의복 연구, 생활과학논집, 4, 연세대학교, 5-16, 1990.
고영복, 현대사회심리학, 법문사, 1980.
구자명, 사춘기 남녀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동기 및 사회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미영,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율화와 외모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김수연, 도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김순구, 성인 및 노인집단의 인구통계적, 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양진,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김영애, 노년기 여성의 외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대한노인복지연구원, 노인복지총람, 1990.
문남원, 기혼 여성의 환경요인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박미애, 노인여성의 신체적 자아 및 생활만족도와 의복태도와의 관계 -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박재옥, 노인의복 연구의 업적에 관한 조사연구, 과학논집, 10, 계명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37-49, 1984.
박재옥, 김일분,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시를 중심으로-, 과학논집, 11, 계명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87-100, 1985.
유경숙,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유명의, 윤영아, 직업인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근무시 유니폼을 착용하는 여성직업인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2(2), 355-370, 1995.
유정열, 연령 및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착용동기에 관한 연구 -대구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윤진,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제작연구, 학술발표논문 초록, 한국심리학회, 1982.
이가옥, 2000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이금실,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 연구 -서울의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이영윤,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임종권 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원, 1985.
임치경,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전재일, 노인으로서의 자기개념의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1, 1978.
정희용,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정희용, 임숙자,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3), 333-342, 1988.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제, 198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0-2021, 199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5권 -인구이동 & 8권- 고령자, 1992.
통계청,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 1993.
통계청, 도시가계년보 1993.
Bader, I. M. An exploratory study of clothing problems and attitude of group of older women in Iowa city, *Adding Life to Years*, 10, Supplement No. 10, 3-6. 1963.
Baum, S., & Boxley, R. Age identification in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3*, 532-537. 1983.
Callis, C. Appearance programs with female chronic psychiatric patients: A comparison of six-week and nine-week treatment interven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48(4), 34-39. 1982.
Chowdhary, U. Self-esteem, age identification, and media exposure of the elderly and their relationship to fashionabi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1), 23-30. 1988.
Creekmore, A. M. Method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1963.
Ebeling, M., & Rosencranz, M. L. Social and personal aspects of clothing for older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6), 464-465. 1961,
Gawne, E. J. and Oerke, B. V. Dress: *The Clothing Text Book*. Chas. A. Bennett Co. 1969.
Hambleton, K. B., Roach, M.E. and Eicher, K. Teenage appearance: conformity, preference and self-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4(2), 32-33. 1972.
Hartrup, W. W. Peer interaction and social orgarnization, in mussen, P. H. ed., *In Man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0.
Hoffman, A. M. *The Daily Needs and Interests of Older People*.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70.
Hoffman, A. M. *Clothing for the Handicapped, the Aged, and Other People with Special Needs*. Springfield, IL: Charles C.Thomas Publisher. 1979.
Hogge, V. E., and Baer, M. M. Elderly women's clothing: Acquisition, fit, and alterations of ready-to-wear garm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333-341. 1986.
Horn, M., & Gurel, 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1981.

Huddleston, P., Ford, I., & Bickle, M. C. Demographic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fashion opinion leadership among matur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4), 26-31. 1993.

Hwang, J.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of men and women aged 55 years and ol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993.

Kernaleguen, A. *Clothing designs for the handicapped.* Edmonton:The University of Alberta Press. 1978.

Kimmel, D. *Adulthood and Ag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4.

Labat, K. L.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1988.

Labat, K. L., & Delong M.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1990.

Mclean, F. P. *The Process of Age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he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1978.

Rosencranz, M. L. *Clothing 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2.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Secourd, R., & Jourard, S.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1953.

Shim, S., Kotsiopulos, A., & Knoll, D.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 1991.

Smathers, D. G. & Horridge, P. E. The effects of physical changes on clothing preferences of elderly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9 (3), 273-278. 1979.

Sontag, M. S. & Schalter, J. 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8. 1982.

The Old, Women's wear daily. June 18. 1967, 박재옥 (1984)에서 재인용.